

생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이견창(李建昌)의 〈녹언(鹿言)〉

김소은*

- I. 들어가며
- II. 동아시아에서의 사슴 표상과 문학적 재현
 - 1. 평화와 장생의 상징
 - 2. 사냥의 대상
- III. <녹언>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 1. 의인화 기법을 통한 위계 전복
 - 2. 진단-치유를 통한 상호연결성 강조
- IV. 나가며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이견창(李建昌, 1852~1898)의 <녹언(鹿言)>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하는 것이다.

사슴은 <녹언>의 서사를 주도하는 존재로서 사슴의 ‘말’의 외연에서 형성되는 사슴의 ‘상(像)’ 역시 작품의 함의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동아시아 전통에서 사슴은 평화롭고 무해한 동물, 장생의 상징으로 그려졌으나 한편으로 조선의 생태 현실에서는 줄곧 사냥당하는 피식자의 위치에 있었다. 19세기에 이르면 이견창을 비롯해 이유원·김윤식·곽중석 등이 사슴 사냥의 잔혹성을 성찰하는 일련의 작품들을 창작하게 되는데, 그 요인으로는 사슴의 지속적인 개체수 감소와 조선 후기 녹용 공납의 정황을 참조할 수 있다.

<녹언>의 생태학적 함의는 주로 다음 두 측면을 통해 드러난다. 먼저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녹언>은 사슴을 언술 주체로 내세우는 의인화 기법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위계를 전복하는데, 이는 현대 생태 문학에서도 흔히 찾아지는 수사법이며 그 선례에 <호질>이 있다. 다만 <녹언>은 <호질>의 ‘꾸깃는 호랑이’를 ‘치유하는 사슴’으로 변용함으로써 인간의 폭력성을 사슴의 온유한 상에 비추어 성찰하게 하고, 사냥 행위에 대한 죄의식을 효과적으로 환기한다. 또한 이자(李子)에 대한 사슴의 진단과 치유 과정을 작품에 구조화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상호 연결된 존재임을 일깨우고, 상생을 통한 자기 치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사슴의 계도를 받은 이자가 엽록(獵鹿)에서 방록(放鹿)으로 사유를 전환함으로써 이자와 사슴의 서사는 분리를 전제로 한 착취에서 연결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서사로 이행된다.

핵심어: 이견창, <녹언>, 사슴 사냥, 녹용, 생태학, <호질>, 상호연결성

1. 들어가며

본 연구의 목적은 이견창(李建昌, 1852~1898)의 <녹언(鹿言)>을 생태학(ecology) 및 생태 비평(ecocriticism)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다.

에콜로지는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인한 환경·기후 문제들이 쟁점화된 오늘날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문학 방면에서 생태학적 관점의 접목은 현대 문학뿐 아니라 전근대 고전문학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한문 고전 텍스트는 유·불·도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사상 전통에 기반하여 근원적 생태 지혜를 환기할 만한 다양한 자원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대 생태학 이론을 발전시킨 서구에서는 일찍이 생태 위기를 종교·사상의 영역에서 고찰하며 유교·불교·도교라는 동양의 사상 자원에 주목하였으며,¹⁾ 조선의 작가·작품론에 있어서는 이규보, 김시

1) 하버드대학 세계종교연구센터, 『불교와 생태학』, 동국대학교출판부, 2005; 메리 에벌린 터커 저, 오정선 역, 『유학사상과 생태학』, 예문서원, 2010; Girardot, N. J. 저, 김백희 역, 『도교와 생태학』,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습, 박지원 등의 작품이 생태 문학으로서 소개된 바 있다.²⁾ 이처럼 현대 생태학 이론을 한문 고전에 접목하는 시도는 동양의 사상 전통에서 근원적인 생태 담론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고전의 현재성을 재고해 본다는 의미를 지닌다.

생태학적 관점을 한문 고전에 접목한 연구는 그간 국내에서도 다수 제출되었다. 박희병은 한국의 전통적 사유가 시적이고 미학적이며, 협소한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인간과 자연, 인간과 만물이 근원적으로 동일한 존재로서 이른바 ‘생생지리(生生之理)’에 따라 생명의 율동을 구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보았다.³⁾ 개별 작품과 관련해서는 박수밀, 김유미, 김경미 등의 연구가 있는데, 박수밀은 생태론적 글쓰기의 관점에서 박지원, 홍대용, 이옥의 작품을 검토하였으며⁴⁾ 김유미는 『성호사설』에서 인간-동물 관계의 인식과 실재를 살펴볼 수 있는 항목들을 발췌해 생태 담론으로서의 의의를 살펴보았다.⁵⁾ 김경미는 박지원의 <호질>을 생태 비평의 관점에서 해석하였으며, 18세기 조선 문인들이 창작한 ‘동물전(動物傳)’을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분석하기도 하였다.⁶⁾ 또한 『청장관전서』에 수록된 이덕무의 <케호설(饋虎說)>을 에코 페미니즘과의 접점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해당 작품이 던지는 중을 넘어선 돌봄과 소통의 가능 여부, 탈인간 중심주의의 진정한 함의와 같은 현재적 질문들에 주목하였다.⁷⁾

2) 안영훈, 『서양인이 간행한 이규보(李奎報) 영역시(英譯詩)의 양상과 특징 -생태적 관점의 읽기와 의미부여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77, 열상고전연구회, 2022; 김유미, 『국외의 동아시아 연구와 한국학 동향 -근근대 생태문학에 관한 영어권 저서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76, 열상고전연구회, 2022.

3)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15~16면.

4) 박수밀, 『생태 글쓰기(Ecological Writing)의 가능성과 전망』, 『작문연구』 28, 한국작문학회, 2016; 박수밀, 『생태 글쓰기의 발전적 탐색과 쓰기 절차 : 박지원과 이옥의 작품을 중심으로』, 『동방학』 44,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1; 박수밀, 『연암 박지원의 생태 정신과 공생 미학』, 『열상고전연구』 77, 열상고전연구회, 2022; 박수밀, 『담헌(湛軒)과 연암(燕巖)의 문학에 나타난 생태적 세계관』, 『동방학』 5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5.

5) 김유미, 『인간-동물 관계의 인식과 실제 -『성호사설(星湖僿說)』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4, 이화어문학회, 2021.

6) 김경미, 『생태비평의 관점에서 본 <호질>』, 『한국한문학회연구』 72, 한국한문학회, 2018; 김경미, 『관계로서의 동물, 동물의 문학적 재현 - 조선후기 ‘동물전(動物傳)’을 중심으로 -』, 『이화어문논집』 51, 이화어문학회, 2020.

7) 김경미, 『에코페미니즘과 고전문학 연구의 접점 찾기-<케호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2.

본고는 상술한 연구 흐름을 이어받아 이견창의 <녹언>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녹언>은 『명미당집』 권13 잡저에 수록되어 있는데 병든 인간인 이자(李子)가 녹용을 구하기 위해 사슴 사냥을 나섰다가, 꿈에서 사슴의 의인화인 녹선생을 만나보고 그의 계도를 받는 내용이다. 꿈에서 녹선생은 이자에게 인간의 문명과 욕망, 인간-자연, 인간-짐승의 관계를 논하며 가르침을 주고, 그 결과 이자는 표면적인 병이 아닌 병의 근원으로서의 ‘마음’을 치유하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 깨달음을 얻은 이자는 사슴 사냥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간다. 즉 <녹언>은 사슴이라는 동물 화자를 내세워 인간과 자연의 치유와 상생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풍부한 생태학적 함의를 지닌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녹언>에 대한 생태학적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전통 한문학의 관점에서 작품의 형식적 특성과 작가 의식을 면밀하게 검토한 송희준(2005)의 연구가 제출된 바 있다.⁸⁾

송희준의 연구는 형식 면에서 <녹언>이 몽유 구조 및 시경체 4언 한시를 도입하는 등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내용 면에서는 사슴을 내세워 인간의 도덕적 타락과 과욕을 질타한다는 점에서 <호질>과 유사한 주제 의식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사슴의 진단 내용을 이견창의 의식 세계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 구한말 지식인들의 ‘자기반성’이 작품에 구현되었다고 보았다.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충실히 고찰함으로써 『녹언』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되지만, <녹언>과 <호질>을 인간성 상실에 대한 질타라는 동일한 층위에 귀납시키며 ‘사슴’을 통해 구현된 <녹언>만의 고유한 특징을 섬세하게 포착하지는 않았다.

이에 본고는 사슴 표상에 대한 계승, 의인화 기법 및 <호질>과의 종적 연관성, 그리고 작품에 구현된 진단-치유 과정 등에 주목해 <녹언>의 생태학적 함의와 생태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간 풍부한 생태학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각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녹언>을 새롭게 독해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8) 송희준, 『명미당 이견창의 의식세계의 한 국면 -『녹언(鹿言)』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35, 한국한문학회, 2005.

II. 동아시아에서의 사슴 표상과 문학적 재현

<녹언>은 사슴을 언술 주체로 내세워 그 내용의 대부분을 사슴의 발화로 구성된 작품이다. 그만큼 사슴은 <녹언>의 서사를 주도하는 존재로서, 사슴의 ‘말(言)’의 외연에서 형성되는 사슴의 ‘상(像)’ 역시 작품의 함의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작품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동아시아 전통에서 사슴이 어떠한 존재로 형상화되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자 한다.

1. 평화와 장생의 상징

사슴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는 원시 시가집이자 유교 경전인 『시경』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녹명(鹿鳴)>은 “평화로이 우는 저 사슴이여, 들판의 쭉을 뜯는구나(呦呦鹿鳴，食野之苹)”라는 흥(興)의 작법으로 시작해 군신 간의 화락한 정을 말하였으며,⁹⁾ <영대(靈臺)>는 평화롭게 엮드려 있는 살찌고 윤택한 사슴을 통해 왕의 선정(善政)을 묘사하였다.¹⁰⁾ 이는 사슴이 아주 이른 시기부터 ‘평화로움’을 상징하는 체계로서 시를 아름답게 장식해 왔음을 보여준다.

사슴이 지닌 평화의 이미지는 그가 숲속에서 자유롭게 노니는 존재[逸鹿]라는 점, 그리고 매우 온순하며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초식동물이라는 점과도 연결된다. 특히 사슴은 한국의 대표적인 토속 동물 중 하나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근한 존재로 인식되었다.¹¹⁾ 예컨대 우리 문학에서 사슴은 자연에서 자유로이 뛰노는 존재로서 일사(逸士)의 벗이자 그들의 지향을 드러내는 자연물이었다. 이규보는 보안현(保安縣)에 머물 때 오직 숲속의 사슴을 벗으로 삼았다고 하였고,¹²⁾ 김시습은 산중 생활 중 약초밭

9) 朱熹, 『詩集傳』, “又以鹿鳴起興, 而言其禮意之厚如此。庶乎人之好我而示我以大道也。”

10) 『詩經』, 『大雅』 <靈臺>, “王有靈臺, 麀鹿攸伏。麀鹿濯濯, 白鳥鶴鶴。王在靈沼, 於物魚躍。”

11) 구석기 시대 이래 사람의 주거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동물의 뼈는 사슴의 뼈로 한반도에는 일찍이 많은 개체의 순록류[大鹿]와 꽃사슴[鹿]류가 서식했으며, 사람들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사슴 고기를 통해 삶을 연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동진, 『조선의 생태환경사』, 서울: 푸른역사, 2017, 51면.)

12)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권17, <十二月移寓保安縣李進士翰材家謝鄉校諸生携酒來慰坐上

에 종종 사슴들이 찾아와 장난을 친다고 하였다.¹³⁾

한편, 인간과 사슴의 관계 맺음을 다룬 일부 작품들에서 사슴은 온순한 털동물, 어리석음을 정도로 순진무구한 존재로 형상화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홍우건(洪祐健, 1811~1866)의 <의록전(義鹿傳)>은 덕천 군수 심공을 따라던 사슴에 대한 전(傳)으로, 여기에서 사슴은 심공의 보살핌에 응해 머리를 숙이고 그를 따르며, 공을 매우 사랑하여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묘사된다. 즉 본래 야생에서 지냈음에도 사람에게 매우 순종적이고 무해한 동물로 그려진다.¹⁴⁾ 기준(奇遵, 1492~1521)의 <축장설(蓄獐說)> 역시 살펴볼 만한데, 유배지에서 노루를 키우며 겪은 일을 꺾진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노루는 사슴과에 속하며 사슴과 생태적 특징이 매우 유사하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그 뿔은 높이 솟아있었고 고고한 용모는 당당했다. 이빨이 있지만 무는 법을 몰랐고, 뿔이 있지만 들이받는 법을 몰랐다. 진실로 무해한 털짐승일 뿐이었다. 처음에는 나와 별로 친하지 않았으나, 곡식을 주고 손으로 쓰다듬자 조금씩 길이 들었다. 날이 갈수록 나와 가까워져 기거할 땐 반드시 옆에 있었고, 내 발걸음을 따라오는 것이 마치 주인을 사모하는 듯했다. …

때때로 집 안의 개와 장난을 치곤 했는데, 개 역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함께 지혜와 재주를 겨뤄 서로 이기고 지는 놀이를 하며 즐거워했으니 이런 일이 여러 번이었다. 어느 날 이웃집 개를 만나 집 안의 개와 놀던 대로 장난을 걸었는데, 그 개가 깜짝 놀라 몸을 떨며 서더니 눈을 치켜뜨고 노려보다가 노루를 잡아 물어 넓적다리를 부러뜨려 죽이고 말았다.¹⁵⁾

作>，“無人肯相顧，園鹿以爲儔。”

13) 金時習, 『梅月堂詩集』 권13, <和鍾陵山居詩>, “藥園鹿數何曾惱, 荼蘼菌生亦不嫌.”

14) 심공이 죽자 사슴은 슬피 울며 상어를 따라갔다가 신주가 돌아온 다음 날 사라지는데, 작품 말미에는 이 일에 대한 ‘군자’와 ‘혹자’, 그리고 ‘나’의 서로 다른 관점이 제시되어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해당 논평부에 주목해 <의록전>이 심공과 사슴의 관계를 신비화, 미화하지만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전의 동물전 전통과 구별된다고 보았다. (김경미, 『관계로서의 동물, 동물의 문학적 재현 - 조선 후기 ‘동물전(動物傳)’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1, 이화어문학회, 2020, 참조.)

15) 奇遵, 『德陽遺稿』 권3, <畜獐說>, “巖然其角出也, 巍然其容高也. 牙而不知齧, 角而不解觸, 信毛蟲之無害者. 始也不甚親, 與之栗, 摩手撫之, 稍稍自馴. 日以相近, 起居必伺. 履焉以隨, 似戀其所主者也. …時與犬畜戲, 犬亦不爲訝, 故與之較智角材, 互爲勝負以相嬉, 如是者數. 一夕遇隣犬試戲如家犬, 乃駭, 悚然而立, 睨然而視, 攬而齧之, 折其股乃斃.”

제시문에서 노루는 높은 뿔과 당당한 용모를 지니기는 했지만 물거나 들이받을 줄 모르는 무해한 털짐승으로 묘사된다. 이에 화자는 노루를 먹이고 쓰다듬어 길들이며, 노루 역시 사람을 매우 잘 따르게 된다. 이후의 내용은 노루가 평소 집 안의 개들과 놀던 대로 이웃집 개에게 장난을 치다가 물려 죽게 된 일을 기록한 것인데, 어리석다고 생각될 만큼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그려진다.¹⁶⁾

이 외에도 사슴의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 중 하나로 ‘장생’을 꼽을 수 있다. 『사문유취(事文類聚)』에서는 사슴이 1000년을 살면 청록(靑鹿)이 되고 500년을 더 살면 백록(白鹿)이 되며 다시 500년을 더 살면 흑록(黑鹿)이 된다고 하였는데,¹⁷⁾ 사슴이 장생을 상징하는 신비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슴은 우리나라의 십장생(十長生)에도 속해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장생의 이미지가 사슴의 외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뿔’의 성질과 연관된다는 점인데, 사슴의 뿔은 나뭇가지 모양으로 매년 봄에 원래의 뿔(鹿角)이 떨어지고 연한 새 뿔(鹿茸)이 돋아난다는 점에서 순환과 재생을 상징한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 사슴은 주로 평화와 장생을 상징하는 상징 체계로서 공유되었다. 평화는 사슴이 자연에서 뛰노는 온순한 동물이란 점과 연결되며, 장생은 사슴의 뿔이 지닌 재생이라는 생태 특징과 관련된다. 그러나 사슴은 그 뿔로 인해 역설적으로 주된 사냥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김윤식은 “사슴은 사람에게 해 끼치지 않고 깊은 숲속 산골에 숨어 지냈네. 욕심 없이 편안히 살며 신령한 풀 뜯어 먹으니, 불사의 술법 깊이 터득했구나(鹿無害於人, 林出竄藏密. 偃仰餌靈草, 深得不死術)”라는 구절로 평화와 장생이라는 사슴의 대표 표상을 제시한 뒤, 이러한 사슴을 사냥하는 인간 행위의 잔혹성에 대해 사유하였다.¹⁸⁾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논하도록 한다.

16) 奇遷, 위의 글, “夫犬之性, 本能搏噬, 而狐兔麋鹿是喜. 其所戲者非力不制, 非牙不利, 而籊也屢觸而不知危. 隣之犬非家之習, 而籊也不審而犯, 卒以害生, 其愚之不亦甚乎?”

17) 『四文類聚後集』, “鹿一千年爲蒼鹿, 又百年化爲白鹿, 又五百年化爲玄鹿.”

18) 金允植, 『雲養集』 권1, <獵鹿>.

2. 사냥의 대상

전통 시대에 사슴은 고기와 가죽, 녹용과 녹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된 사냥 대상이었으며, <녹언> 역시 조선 시대에 매우 보편적으로 행해진 사슴 사냥을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조선 시대 사슴 사냥에 대한 기록은 수없이 많은데, 『조선왕조실록』에서 이성계, 이방원, 세조 등이 사슴을 잡아 활 솜씨를 자랑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슴은 노루보다 사냥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며, 그 고기는 가을철에 가장 맛이 좋았다고 한다. 또한 큰 눈이 내리면 사슴이 이동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때를 기회로 삼아 사슴 사냥을 나갔다는 기록도 보인다.¹⁹⁾ 조선 시대에 사슴은 제사, 희생, 천신 등에 제물로 제공되는 일이 흔했고 대상전이나 성균관에 사여되거나 사신에게 선물로 증여되었다.²⁰⁾ 이에 16세기 무렵부터 사슴의 분포 범위는 지속적으로 좁아져, 개간이 활발해진 17~18세기에는 개체가 더욱 감소했다고 한다.²¹⁾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슴은 자연에서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야생동물, 그중에서도 해를 끼치지 않는 부류에 속했기 때문에, 사냥의 정당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사슴은 온순한 초식동물로서 호환(虎患)을 일으켰던 호랑이와는 입지가 달랐다. 위협적인 호랑이를 사냥하는 데에는 나름의 정당성이 있었지만, 무고한 야생동물을 일방적으로 사냥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식을 자극했다. 『성호사설(星湖僿說)』 <식육(食肉)>에 보이는 다음 언급은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당대 지식인들의 사유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백성은 나의 동포이고 만물은 나와 동류이다. 그러나 초목만은 지각이 없어 혈육을 가진 동물과 구별되니, 사람은 그것을 살아가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날짐승·길짐승은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점이 사람과 같으니, 어떻게 차마 해칠 수가 있단 말인가? 동물 중에서도 사람을 해치는 동물은 이치상 잡아 죽일 수 있다. 또 사람에게 의해 길러지는 가축은 나를 기다려 성장했

19) 사슴 사냥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들은 이병희, 『조선시기 동물의 수적 변동과 그 의미』, 『청람사학』 32, 청람사학회, 2020, 148~151면을 참조.

20) 이병희, 앞의 논문, 149~151면.

21) 김동진, 앞의 책, 55~58면.

으니, 나에게 생명을 내어줄 수 있다. 하지만 저 산과 물에서 저절로 성장한 것들이 모두 사냥과 그물의 독을 당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물은 사람을 위해 생겨난 것이니 사람에게 잡아먹혀 마땅하다.” 이 말을 듣고 정자(程子)는 “이(蟲)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를 위해 생겨났단 말이나?” 하였으니, 그 변론이 또한 분명하다.²²⁾

해당 제시문에는 동식물의 생명권에 대한 다층적인 사유 과정이 나타난다. 성호는 만물과 인간이 동류임을 전제하면서도 식물, 포식 동물, 가축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야생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또 특별히 위협적이지도 않은 동물들이 사냥당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이치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하면서, 만물이 모두 인간의 식량이 될 수 있다는 혹자의 논리를 정자의 말로 반박한다. 지각이 있으면서 해를 끼치지 않는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것에 있어서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녹언>에서 이자는 약재인 녹용을 얻기 위해 사냥을 나서는데, 주지하듯 빨은 사슴의 외형에서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다. 또한 녹용은 봄에 새롭게 돌아난 연한 빨로 녹각과 구별되며, 채취할 때 피가 배어나고 사슴이 느끼는 고통 또한 매우 컸다고 한다. 즉 녹용 채취는 막 돌아난 빨을 제거한다는 점, 사슴의 상징성에 대한 파괴라는 측면에서 더욱 잔인한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슴 사냥을 주제화한 일부 작품들에는 화자의 반성과 비판 의식이 나타난다.

엽록(獵鹿) 모티프는 이른 시기의 동물 보은담 설화에서도 찾아지는 내용이기도 하지만,²³⁾ 이견창이 활동한 19세기는 이러한 작품들이 대동소이한 주제 의식 아래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녹

22) 李瀛, 『星湖僿說』 권12, <食肉>, “民, 吾同胞; 物, 吾與也. 然草木無知覺與血肉者有別, 可取以資活. 如禽獸貪生惡殺, 與人同情. 又胡爲忍以戕害? 就其中害人之物, 理宜擒殺. 爲人畜牧者, 卽待吾成遂, 猶有所諉. 如山上水中自生自長者, 都被佃漁之毒, 又曷故哉? 說者曰: ‘萬物皆爲人生, 故爲人所食.’ 程子聞之曰: ‘蟲咬人, 人爲蟲而生耶?’ 其辨亦明矣.”

23) 고려 말 이계현의 『櫟翁稗說』에 수록된 <사냥꾼과 아내>가 한 예시이다. 사냥꾼에게 잡힌 사슴은 자신이 죄를 얻어 사슴의 모습으로 인간 세계에 오게 된 선녀라며 놓아주길 간청한다. 사냥꾼은 사슴을 놓아주지만, 그의 아내는 이를 빌미로 사슴에게 소원을 들어주길 요구하라고 말한다. 사슴은 이들의 첫 번째 소원은 들어주었으나 두 번째, 세 번째 소원은 욕심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들어주지 않는다.

언> 외에도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엽록(獵鹿)>,²⁴⁾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의 <엽록(獵鹿)>²⁵⁾, 곽종석(郭鍾錫, 1846~1919)의 <녹탄(鹿嘆)>²⁶⁾ 등 한시 작품이 모두 녹용과 녹혈 채취를 위한 사슴 사냥의 잔혹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였다.

이견장을 포함한 19세기 작가들이 왜 이처럼 사슴 사냥을 소재로 한 일련의 작품들을 창작하였는지, 그 이유와 관련된 직접적인 요인은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17~18세기 잦은 개간으로 인한 사슴의 지속적인 개체수 감소, 특히 조선 후기부터 19세기에 특히 논의가 많았던 녹용 공급의 정황을 참조할 수 있다. 귀한 약재였던 녹용은 예로부터 여러 공납품 중 하나였고, 5월부터 초가을 전까지의 특정 시기에 채취할 수 있었다. 이 시기는 농번기에 해당하고 또 애초에 날썸 사슴을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른 시기부터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예컨대 태종 17년(1417) 기록에 “녹용을 얻으려고 사냥에 나서면 열에 하나도 얻지 못하는데, 그 시기가 5월이어서 농사에 방해가 되고 또 절실하게 필요한 약이 아니니, 공물로 진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액수를 헤아려 줄여달라.”라는 내용이 보인다.²⁷⁾ 조선 후기로 가면 영비(營裨)나 사상(私商)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녹용 값이 상정원가(常定元價)를 훨씬 뛰어넘게 책정되는 문제가 빈번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²⁸⁾ 일례로 홍양호(洪良浩, 1724~1802)의 『북새잡요(北塞雜謠)』 수록 <녹용(鹿茸)>은 당시 녹용 진상을 위해 사냥에 나서야 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24) 李裕元, 『嘉梧藥略』 권4, <獵鹿>. 이 외에도 이유원의 <子鹿歌>와 <放鹿歌>는 사슴 ‘사냥’을 주제로 하진 않았지만, 사슴의 특징과 사슴과 화자의 관계를 다른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5) 金允植, 『雲養集』 권1, <獵鹿>.

26) 郭鍾錫, 『俛宇先生文集』 권4, <鹿歎>.

27) 『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윤5월 9일 甲子, “議政府, 六曹上擬議各道陳言內條件…‘鹿茸之獵獲, 十不能得一, 時當五月, 有妨農務, 且非切要之藥, 除供上外, 量用減定.’”

28) 『正祖實錄』 권5, 정조 2년 2월 5일 丙申, “領議政金尙喆啓言: ‘咸鏡監司趙璉狀啓, 條列各邑弊廢三條, 其一, 進上鹿茸, 比常定元價, 近益踊貴. 請依京作貢例, 擇定營下富實人, 各邑鹿茸價, 先其劃給, 當節買納, 加給不足價布十五疋也.’”

북방의 5월달 하지가 지난 뒤에	北方五月夏至後,
녹각이 떨어지고 녹용이 자라네	鹿角始解方出茸.
아! 너의 화포수들아	嗟爾火砲手,
다음 달에는 진상품을 올려야 하리라	來月進上當封.
서둘러 포를 들고 산에 올라	火急持砲上山去,
깊은 산속 승냥이와 호랑이 마주칠 것을	深入莫怕豺虎逢.
두려워 말라	
살점이 붙어있고 털이 가늘며 죽순	得來帶肉淺毛竹笋樣,
모양인 것으로 가져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상할 수 없으리라	不然不合御供. ²⁹⁾

19세기 순조 조에 이르면 세도정치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녹용 공납에 대한 피로감 또한 더욱 극심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견창의 문집에 수록된 양헌수(梁憲洙, 1816~1888)에 대한 다음 기록은 19세기 녹용 공납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녹용을 공물로 바치는 폐단을 아뢰어 말하기를, “관(關) 남북 지역에서 백성 수천 명이 동원되어 오백에서 육백 리에 이르는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위험한 땅을 몸소 헤매고, 집에서는 농사일을 내팽개칩니다. 그렇게 애써도 녹용을 얻는 사람은 백에 한둘인데, 조정에 진상하여 받는 대가는 한 쌍당 기껏해야 삼십 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국(內局)에서 실제로 계산하는 가격은 이백 냥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는 명백히 약재를 다루는 무리의 배를 불리는 재원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백 냥을 가지고 한 쌍의 녹용을 구하려 든다면 어디서든 구할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이처럼 백성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한단 말입니까?” 하였다.³⁰⁾

제시문은 당시 녹용 공납을 위해 수천 명의 백성들이 오백에서 육백 리

29) 洪良浩, 『耳溪集』 권2 『北塞雜謠』, <鹿茸>.

30) 李建昌, 『明美堂集』 권19, <工曹判書梁公墓誌銘>, “附陳府貢鹿茸之弊曰: “關南北, 動民千餘, 入山五六百里. 闕夏阻秋, 身涉死地, 家廢農務. 其得茸者, 百僅一二, 進供受價, 每對不過三四十兩, 而內局實勘二百兩, 此審藥輩中飽之資而已. 夫以二百兩, 求一對鹿茸, 何往不得, 而奈何以此流毒生民哉?”

에 이르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사슴 사냥을 시도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도 녹용을 얻기는 극히 어려웠는데, 이 내용은 앞서 제시한 이유원의 <엽록> 도입부의 사냥 장면과 유사하다. <엽록>에서 이유원은 매해 유월 사냥꾼들이 떼를 지어 산에 들어가 사슴 무리를 쫓지만, 헛되이 짓밟힌 자리만 남을 뿐 소득이 없다고 기술하였다.³¹⁾ 그뿐 아니라 설령 운 좋게 녹용을 구해 진상하더라도 백성들은 제값을 받을 수 없었던 반면, 약재를 다루는 내국에서는 녹용 값을 불러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재원으로 삼았다. 위 제시문은 당시 백성들이 부당한 녹용 진상에 대거 동원되어 고통과 피로에 시달렸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러한 정황은 <녹언>을 비롯한 19세기 엽록 소재 작품의 사유 과정을 이해하는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모든 작품이 하지 무렵 녹용 채취를 위한 사슴 사냥을 소재로 삼았으며, 녹용과 녹혈의 약용성(藥用性)에 대한 믿음을 꼬집기도 하면서³²⁾ 사슴을 희생해 그 뿔과 피를 취하는 인간의 잔혹성을 성찰하였다. 이처럼 19세기에 광범위하게 행해진 녹용 채취와 그에 따른 사슴의 생태 위기를 작품 창작의 직·간접적 배경이라 본다면, 이들 작품은 비교적 구체적인 생태 문제에 직면해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더 생태 문학으로서 분석될 여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본고는 사슴의 대표 표상과 동시대의 엽록 모티프가 잘 구현된 바탕 위에, <호질>과의 종적인 비교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녹언>을 우선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31) 李裕元, 『嘉梧藥略』 권4, <獵鹿>, “我園深在嘉梧谷, 年年六月事即鹿. 趕赴佃夫不招至, 何處溪壑曾攸伏. 一隅纔過一峴越, 所見叢雜皆林木. 朱鬣鬚鬢袒裼驅, 伎仗舛舛進羣族. 走東走西乘風走, 一場空虛餘踏蹴.”

32) <녹언>에서 병든 李子는 녹용을 먹으면 효험이 있을 것이라는 의원의 말을 듣고 사슴 사냥에 나선다. (李子有羸勞之疾, 詢于醫. 醫曰“服鹿茸則吉,” 於是出獵于東陽之峽, 踰月而無獲, 倦而少息.) 또한 이유원의 <엽록>에서는 녹혈을 마신 뒤의 효험을 다음과 같이 과장해 묘사하며 사슴 사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 (朝來忽得血一盆, 包之白茅赤漣漣. 鴻門切啗何其壯, 粵宮臥管何其黷. 長吸不羨青蓮酒, 流漱還同安石粥. 神氣酣醺通九竅, 顏色滋潤明雙目. 從此病軀快蘇健, 五嶽可挾超四瀆.)

III. <녹언>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본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녹언>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생태학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녹언>의 내용 전반을 개관하면 아래와 같다.

입몽(入夢)	이자가 의사의 조언에 따라 사슴 사냥을 나섰다가 잠이 들.
꿈속에서 사슴의 발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자의 병은 외물로 ‘마음’을 어지럽힌 결과임 ② 몸을 해치게 만드는 여러 욕망(일반론) ③ 이자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쇠퇴한 시대에 훌륭한 문장을 지으려 골몰함 2) 원대한 이상을 추구하며 과로함 3) 속을 태우며 평정을 유지하지 못함 4) 번거로움을 싫어하는 게으른 습관이 천성으로 굳어짐 ④ 녹용이 약이 되는 이유: 사슴의 자연에서의 솔성(率性) ⑤ ‘4’를 모른 채 폭력으로 뿔과 피를 빼앗는 인간들 ⑥ 인간과 짐승이 천부(天賦) 받은 바의 차이 ⑦ 천부 받은 바를 지키지 못하고 구태여 미천한 짐승의 것을 빼앗는 일의 불합리성
각몽(覺夢)	사냥을 그만두고 치유를 결심하는 이자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 <녹언>은 구조와 기법 면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을 지닌다. 큰 서사는 몽유 구조로 짜여 있고, 작품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부분 꿈속 사슴의 발화로 이루어져 있다. 이자는 입몽 단계에서 사슴 사냥을 목표로 하지만, 꿈속에서 사슴의 발화를 통해 방록(放鹿)으로 사유를 전환하고, 각몽 단계에서는 이를 현실에 옮긴다. 또한 사슴의 발화를 세분해 보면 ①~③은 이자에 대한 진단에, ④~⑦은 치유 방안을 논한 부분에 해당한다. 즉 사슴을 언술 주체로 내세운 의인화 기법과 작품의 진단-치유 구조를 <녹언>의 주요 특징으로 거론해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상술한 두 측면에 초점을 두어 본격적으로 작품의 생태학적 함의를 논하기로 한다. 의인화 기법과 관련해서는 <녹언>과 <호질>의 유사성을 짚은 선행 연구의 입장을 수용하되, 사슴과 호랑이의 어조와 논리를 비교하는 데에 나아가 두 동물 화자가 생태 의식을 환기하는 방식에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밝히

고자 한다.

1. 의인화 기법을 통한 위계 전복

<녹언>에서 사슴이 한 충고의 핵심은 병의 근원이 몸이 아닌 마음에 있으므로 욕망에서 벗어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인데, 자연과 동물을 착취 대상으로 보는 인간 문명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 역시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비판의 내용 이전에, 이러한 비판이 동물 화자의 언술을 통해 표명된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를 지닌다.

자연을 의인화해 언술 주체로 내세우는 것은 현대 생태 문학에서 흔히 보이는 수사 전략이기도 하다. 이는 자연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지닌 능동적 주체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인간만을 언술 주체로 내세워 자연을 침묵시키지 않겠다는 의도의 표현이다. 이러한 전략은 특히 가부장 사회에서 침묵을 강요당하며 배제되어 온 여성을 자연과 연계하는 에코 페미니즘 문학에서 두드러진다. 이들 작품에서는 동식물을 인간과 같이 감정을 지니고, 사고하고, 대화하는 독립 주체로 내세워 줄곧 그들을 주시하고 판단해 온 인간 시점의 한계와 부당성을 지적한다. 예컨대 르 귄(Ursula Le Guin)은 여성과 동식물을 타자화하는 가부장적 언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말하는 동물 이야기가 조롱하거나 전복시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인간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신화라고 보았다.³³⁾

제목에서부터 드러나듯 <녹언>의 ‘말하는’ 주체는 사슴이며, 인간과 비인간의 대면을 기본 구조로 동물 화자인 사슴이 서사를 주도한다. 더 나아가 사슴은 이자에게 깨달음을 주며 그의 사유와 행동 방식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사슴은 이자의 병을 진단하고(㉠~㉢), 술성하는 자신

33) 신두호, 『자연과 언어—생태문학의 의인화 기법과 문학 생태학의 녹색언어 탐색』, 『영어영문학』 47, 영어영문학회, 2001, 857~859면. 이 논문에서는 자연을 언술 주체로 내세우는 수사의 한계를 지적한 소로우, 스나이더, 로페즈, 체이니 등의 논의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일례로 소로우는 의인화 기법이 자연의 언어를 인간의 인습적 언어로 환원하는 점을 지적하며, 본래적 의미의 자연을 담은 황갈색 문법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수사적 한계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저에 깔린 윤리적 사고방식(ethical orientation)이라는 뷰얼의 관점을 아울러 언급하되, 수사학이 단순한 문학적 고안에 그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도 하였다.

과 인간의 문명을 대비시키며(④~⑤), 인간과 동물의 존재론적 차이를 논하고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한다(⑥~⑦). 즉 표면적으로 사슴은 이자를 계도(啓導)하는 위치에 있으며 이자는 사슴을 ‘녹선생’이라 존대한다. 앞서 제시한 <축장설>이나 <의록전>에 형상화된, 인간에게 순종적이며 어리석을 정도로 순진무구한 사슴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녹언>의 사슴은 병든 인간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사슴의 어조는 완곡하고 부드러우며, 인간의 폭력성을 비판하면서도 병들어 있는 인간에 대한 연민을 보여준다. 그뿐 아니라 사슴의 부드러운 이미지는 작품이 치유의 길로서 제시하는 도가적 처세와도 관련된다.³⁴⁾

큰 도는 정성스러워서 부드럽고 낮은 곳에 처합니다. 마음을 수고스럽게 하며 외면을 추구하는 것을 질곡(桎梏)이라 부릅니다. 그대는 사람됨이 일이 닥치면 속마음을 다 드러내어, 기뻐하고 성내는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고 평정을 유지할 때가 적습니다. 분란과 격정이 번갈아 발생하는데 후회하되 고치지 못하므로 자기 정기를 스스로 흔들어 놓습니다.…이 모든 것이 그대의 병을 만든 근원입니다. 그대는 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³⁵⁾

큰 도가 순순(肫肫)하여 빈(牝)·곡(谷)과 같다는 것은 노자의 『도덕경』에 보이는 “큰 나라는 아래쪽에 처하니 천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요, 천하 사람들이 회귀하는 암컷이다. 암컷은 고요함으로 수컷을 이기고 고요함으로 아래가 된다.”³⁶⁾라는 구절을 원용한 것이다. <녹언>에서 사슴은 유위(有爲)의 욕망이 이자를 병들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드럽고 아래에 처하는’ 큰 도를 추구하라 말한다. 부드럽고 아래에 처하는 도는 궁극적으

34) 이와 관련해서는 『明美堂集』 권4에 수록된 <獵無所得, 罷歸戲題>을 참조할 수 있다. 해당시는 사슴 사냥을 나갔다가 소득 없이 돌아온 소회를 읊은 것으로 상황성이 <녹언>과 유사하다. 여기에서 이견창은 “기심이 사라지고 도심이 온전해졌다.(機心纔歇道心全)”고 했는데, 기심(機心)은 『莊子』 『天地』의 “機械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교묘한 일을 하게 되고, 교묘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묘한 마음을 지니게 된다.(有機械者必有機事 有機事者必有機心)”에서 나온 말이다.

35) 李建昌, 『明美堂集』 권13, <鹿言>, “大道肫肫, 爲牝爲谷. 勞心外馳, 是謂桎梏. 子之爲人, 遇事徑情. 喜愠之感, 多偏少平. 紛紛激輒, 交發疊生. 悔而不改, 自搖其精. …凡此皆吾子致疾之原. 吾子其思吾言.”

36) 老子, 『道德經』, “大國者下流, 天下之交, 天下之牝. 牝常以靜勝牡, 以靜爲下.”

로 사슴의 무해하고 온유한 생태적 특징과 연결된다.

이처럼 <녹언>은 사슴이라는 동물 화자를 내세워 인간 관점의 한계를 지적한다는 점에서 <호질>과 유사하다. 다만 <호질>의 꾸짖는 호랑이가 <녹언>에서는 치유하는 사슴으로 전환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호랑이와 사슴의 생태적 특징의 차이는 매우 확연한데, 전자가 포식 동물이라면 후자는 피식 동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의 어조와 논리에는 차이가 없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생태 윤리를 환기하는 방식 역시 달라진다. 예컨대 <녹언>의 사슴과 달리 <호질>의 호랑이는 자신의 덕을 ‘광명정대’하다고 자부하며 북곽선생을 크게 꾸짖는다. 꾸지람을 받는 북곽선생은 구원의 여지가 없을 만큼 비굴하고 허위적인 인물로 그려지며, <호질>은 북곽선생을 회화·조롱·풍자하는 골계적인 수사를 중점적으로 활용한다. 반면 <녹언>에서 사슴은 온유한 어조로 병든 인간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존재로서 형상화된다.

이 외에도 포식자인 호랑이와 달리 피식자인 사슴의 언술에는 생존 전략이라는 이면성이 있다. <녹언>에서 사슴은 비록 이자를 계도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지만, 이자를 설득하지 못하면 사실상 자신이 사냥당할 위험에 처해있다. 따라서 사슴의 언술은 호랑이에 비해 완곡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이는 특히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을 논한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 너희가 리(理)를 말하고 성(性)을 논할 때 걸핏하면 하늘을 일컫지만, 천명(天命)으로 보면 호랑이나 사람이나 다 같이 만물 중의 하나이다. 천지가 만물을 낳는 인(仁)의 관점에서 본다면, 호랑이와 메뚜기와 누에와 벌과 개미와 사람은 모두 함께 기르는 것이니 서로 해치고 거슬러서는 안 된다. 선과 악으로 따진다면 공공연히 벌과 개미집을 터는 놈이야말로 인의(人義)의 큰 도적이 아니겠는가. 함부로 메뚜기와 누에의 밑천을 훔치는 놈이야말로 인의를 해치는 큰 도적이 아니고 무엇이냐.³⁷⁾

㉡ 사람의 생명은 정기를 축적하고 빼어난 기운을 길러서 만들어집니다. 누가

37) 朴趾源, 『熱河日記』, <虎叱>, “汝談理論性, 動輒稱天, 自天所命而視之, 則虎與人乃物之一也. 自天地生物之仁而論之, 則虎與蝗蚤蜂蟻與人, 並畜而不可相恃也. 自其善惡而辨之, 則公行剽劫於蠶蟻之室者, 獨不爲仁義之巨盜乎? 肆然攘竊於蝗蚤之資者, 獨不爲仁義之大賊乎?”

저 하늘을 공평무사하다고 했습니까? 하늘은 그 나머지 냄새나고 더러운 찌꺼기들을 거둬다가 우리 족속에 주고서는 짐승이라 이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짐승은 자신을 아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잘 보전하는 반면, 인간은 절제를 모르고 넉넉히 부여받은 바를 낭비합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의 것을 빼앗으러 오니, 그 마음이 편안할 수 있었습니까? … 이제 그대가 총명함과 빼어남을 하늘로부터 받고서도 흡족하지 않아 나와 같은 비루한 짐승의 물건을 가져가려 하니, 이것이야말로 술동이에 술지게미를 채우고 제기엔 쪽정이를 담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비린내 나는 몸뚱이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현군자(賢君子)를 위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³⁸⁾

㉑의 호랑이는 인간과 동물이 동등하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편의에 따라 미물을 착취하는 인간을 도적이라 일갈한다. 반면 ㉒의 사슴은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차등적 물관을 견지하되, 동물이 적게 부여받고서도 술성할 줄 아는 것과 달리 부끄럽게도 인간은 넉넉히 부여받은 바를 낭비하고 더러운 동물의 것을 빼앗으려 한다고 지적한다. 차등적 물관을 전제하며 우회적으로 인간을 비판하고, 이를 통해 인간을 설득하는 것이다. 자신의 언설이 누추한 몸뚱이를 아껴서가 아님을 부연하는 대목에서, 독자는 사슴이 인간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임을 새삼스레 상기할 수 있다.

이러한 완곡함은 적어도 인간 행위에 대한 비판의 측면에서 <호질>이 <녹언>보다 더 나아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호랑이가 아닌 사슴을 언술 주체로 내세우는 것 역시 그 나름의 방식으로 생태 윤리의식을 환기한다. 먼저 우월성을 앞세운 인간의 폭력 행위를 온유한 사슴의 상(像)을 통해 반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호랑이가 인간을 꾸짖을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대안적 상이 될 수 없는 것과 구별된다. 또한 사슴의 발화가 지닌 이면성은 인간의 죄의식을 자극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앞서 살펴봤듯 위협적인 호랑이를 사냥하는 데에는 나름의 정당성이 있지만, 무해하고 연약

38) 李建昌, 『明美堂集』 권13, <鹿言>, “嗟哉! 人之有生, 儲精毓秀. 誰謂彼天而不私覆? 盡收其餘, 臭濁滓垢, 以畀余族, 命之曰獸. 獸能自愛, 以全其受, 人若不節, 虧其富有, 反來相奪, 於心安否? …今以吾子聰明靈秀之稟於天者, 猶以為未慊, 而賴取於如僕之鄙, 不幾近於糟粕充上尊, 糠粃盛六簋乎? 僕非惜此腥臊之軀也, 竊不能不為賢君子耻之也.”

한 사슴을 일방적으로 사냥하는 것은 정당성이 취약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호랑이와 사슴의 어조에 나타난 비판 수위와는 별개로, 두 작품이 서로 다른 동물을 언술 주제로 내세움으로써 얻는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 진단-치유를 통한 상호연결성 강조

<녹연>의 또 다른 특징은 질병의 진단, 치료, 회복의 과정을 작품 속에 구조화함으로써 이자와 사슴의 이야기를 착취에서 상생의 서사로 이행한다는 점이다. 작품의 서두 부분에는 이자가 몸이 허약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병이 생겨 의원을 찾아갔고, 의원이 녹용을 복용하라 하기에 동양(東陽)의 골짜기로 사냥에 나섰다는 말이 제시되어 있다.³⁹⁾ 한 달이 넘도록 사슴을 잡지 못한 이자는 피곤하여 잠이 들고, 꿈속에서 사슴의 진단을 받는다. 사슴은 자신이 이자에 대해 “보지 않아도 저절로 병을 알아보는” 상의(上醫)임을 자부하며 진단을 시작한다.⁴⁰⁾ 즉 병자는 이자라는 사람이고 진단하는 주체는 사슴이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이자의 꿈속, 즉 내면 의식의 층위이다. 이자의 병은 현실에서 얻어진 것이지만 사슴의 진단은 꿈속에서 이루어지고, 꿈에서 깬 이자는 진단 내용을 현실에 반영해 사슴 사냥을 그만두고 자신을 치유할 결심을 하게 된다.⁴¹⁾ 전체적인 서사가 마치 하나의 심리치료 과정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사슴이 제시한 치유 방안의 핵심은 유위의 욕망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란 것이다. 사슴은 자신의 뿔과 피를 취하는 폭력 행위가 병의 치유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중요한 것은 자연에서의 솔성임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대가 병에 이르게 된 원인입니다. 그대는 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그대는 나에게서 한갓 약만을 구하려 하고, 내가 어떻게 그

39) 위의 글, “李子有羸勞之疾, 詢于醫, 醫曰: ‘服鹿茸則吉.’ 於是出獵于東陽之峽, 踰月而無獲, 倦而少息, 夢一丈夫黃冠蒼裘, 頰而甚澤, 厥角隆然, 一雙三尺.”

40) 위의 글, “僕聞之, 下醫觀色, 中醫觀脈, 上醫無觀, 默然而識, 僕之於子, 所謂不言而得者也.”

41) 위의 글, “李子俛首良久, 起而對曰: ‘敬聞鹿先生之嘉音, 詩云 ‘我有嘉賓, 鼓瑟鼓琴, 和樂且湛’ 者也.’ 罷獵而歸, 佩服銘箴. 豈惟去疾? 且以養心.”

대에게 약이 될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까? 저는 숲속에서 살아가는 털짐승입니다. 눈으로는 창혈이 만든 문자도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주공이나 공자의 문장을 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얻고 잃는 것이라곤 봄 풀 몇 포기이고, 시비를 따지는 것이라곤 한 조각 가을 구름입니다. 여기저기 떠돌면서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없으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마음껏 노닐고 제멋대로 내달립니다. 마음은 언제나 편하고 걸모습은 언제나 바쁩니다. 마음이 편한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성질을 보존하는 방법이고, 걸으로 바쁜 것은 생명을 늘리는 길입니다. 무슨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⁴²⁾

㉒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이롭게 하고자 사물을 죽인단 말입니까? 저들은 내 빨 끝의 살을 떼어가고 또 내 위 속에 있는 피를 빨아먹습니다. 이는 폭력을 휘둘러 욕망을 마음껏 채우려는 속셈이니, 어찌 약을 얻어 병을 고치려 할 뿐이겠습니까? 그대만은 사리를 밝힐 만큼 명석하고 남을 구휼할 만큼 인자합니다. 그런데도 용렬한 의원의 말을 믿고서 내가 사는 곳을 시끄럽게 하고 우리 집을 강탈하려 하니 어찌 천려일실(千慮一失)이 아니겠습니까?⁴³⁾

㉓에서 사슴은 자신이 인간에게 약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술성하는 삶의 방식에서 찾아 설명한다. 사슴은 문자와 문장이라는 인간 문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오직 풀 한 포기, 구름 한 조각과 더불어 살아간다. 비록 하늘로부터 많은 것을 부여받진 못했으나 마음을 편하게 함으로써 본성을 보존하고 자유롭게 내달리며 생명력을 연장한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의도적인 것이 아닌 자연에 순응한 결과로, 소위 문명 안에서 정신만 골몰하고 사지는 게을리하는 이자의 삶⁴⁴⁾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사슴의 삶을 이루는

42) 위의 글, “凡此皆吾子致疾之原, 吾子其思吾言. 且子徒求藥於僕, 而不知僕之所以能爲藥於子者. 吾子其亦欲聞之耶? 僕山林之毛羣也, 目不辨史皇之書, 心不涉姬孔之文. 得失則數莖春草, 是非則一片秋雲. 逍遙放浪, 無戚無欣. 跳躍遨盪, 載馳載奔. 其中常逸, 其外常勤. 逸者, 所以葆其天. 勤者, 所以引其年. 僕非有爲而爲也, 盖亦任其自然然而耳.”

43) 위의 글, “夫何世人之不寤, 乃欲自利而戕物? 既攫吾角端之肉, 又探吾胃中之血. 彼將肆暴而縱慾, 又豈但爲服餌而療疾? 惟子明足以燭理, 仁足以相恤, 而反信庸醫之說, 將以擾吾鄉而刮吾室, 得無爲千慮之一失乎?”

44) 위의 글, “子之爲人, 遇事徑情, 喜慍之感, 多偏少平. 紛綸激刺, 交發疊生, 悔而不改, 自搖其精. 子之平居, 喜閑厭煩, 偃仰終日, 足不窺園, 四體弛解, 支不束根. 久習成性, 清氣乃昏. 凡此

‘숲’, ‘봄 풀 몇 포기’, ‘한 조각 가을 구름’, ‘뛰놀’ 등은 목가적이고 편안한 생태 이미지를 환기한다. 결과적으로, 사슴의 진단은 표면적인 현상만을 보지 않고, 병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인간 의원의 진단과 구별된다.

[의원의 진단]

이자의 병은 녹용을 먹으면 효험이 있을 것이다.

[사슴의 논리]

- a. 이자가 병에 걸린 이유는 유위(有爲)의 욕망과 게으른 습속 때문이다.
- b. 녹용이 약이 되는 이유는 사슴이 술성하며 부지런히 뛰놀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술한 전제를 바탕으로 전개하는 ㉔의 논리이다. 사슴은 인간이 술성의 이치를 모르고 사물을 죽여 이익을 취하려 한다고 말한다. 병을 고친다는 이유로 뿔을 떼어가고 피를 빨아먹지만, 기실 여기에는 약용의 목적 외에 욕망을 채우려는 속셈이 있다고도 지적한다.

그런데 앞서 사슴이 이자가 병에 걸린 이유를 욕망이라 진단한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뿔을 떼어가고 피를 빨아먹는 행위는 인간의 병을 치료하기는커녕 병의 원인인 욕망만 더욱 키울 뿐이다. 즉 사슴을 죽여 녹용과 녹혈을 취하는 것은 자연물에 대한 착취라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인간 자신의 병을 치유하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이다.

[인간의 논리]

인간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녹용을 구한다.

[사슴의 논리]

- c. 사물을 죽이는 것은 자연에서의 술성이 약이 됨(b)을 깨닫지 못한 소치이다.
- d. 녹용을 구하는 데에는 병을 치료하려는 목적 외에 욕망(a)을 채우려는 속셈이 있다.

사슴의 논리에 의하면 인간이 다른 동물을 죽이는 것은 b를 무시하고 a를 따르는 행위로, 인간 자신의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익을 위해 자연물을 착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간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위 논리는 생태학의 기본 전제가 되는 상호 관계성 개념을 상기시킨다. 생태학에서 상호 관계성이란 인간이 자연 세계와 분리되지 않으며, 자연계의 다양한 양상과 영역들이 서로 연결되어 의존한다는 것으로, 자연과 인간의 구별, 대립, 확연한 분리를 전제로 하는 착취 논리와는 대조를 이룬다.⁴⁵⁾ 이러한 상호 의존적 연결망이 중점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곧 특정한 중심성, 그리고 중심성을 기반으로 한 배타성이라 할 수 있다. <녹언>에서 사슴이 주로 반박하는 대상 역시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한다.’라는 인간 중심적이고 배타적인 논리이다. 결과적으로 이자는 사슴의 조언을 받아들여 사냥을 그만두며, 마음의 욕망을 수양할 마음을 먹게 된다. 즉 사슴의 진단 과정을 거치면서 이자와 사슴의 관계는 대립과 분리를 전제로 한 착취 관계에서 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상생 관계로 이행된다.

정리하면 <녹언>은 몽유 구조와 ‘병자(인간)-진단자(사슴)’ 구도를 통해 질병·진단·치유·회복의 과정을 작품 속에 구조화하고, 사슴의 발화를 통해 자연과의 상호성과 연결성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연 생태계에 대한 파괴 행위가 인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며, 인간은 자연과 연결된 존재로서 생태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을 치유해야 함을 전달한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이견창의 문학에서 <녹언>은 특별히 어떤 의미를 지니며, 당시의 시대상과는 어떻게 연관되는가? 먼저 ‘이자’라는 작중 인물은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 저자 ‘이견창’으로 환원될 수 있다.⁴⁶⁾ 작품의 전반부에서 사슴은 이자가 쇠퇴한 시대에 원대한 이상을 추구하며 과로하고, 속을 태우면서도 몸은 점차 나태한 습속에 빠져드는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진단한다.⁴⁷⁾ 특히 “그대는 문장을 지은 지 몇십 년이 되었어도 입으로

45) 그렉 개러드 저, 강규한 역, 『생태 비평』,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45면, “주도적인 유럽-미국 문화에서 인간은 자연과 ‘구별’될 뿐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소외되고 그것보다 우위에 서는 방식으로 자연에 ‘대립’한다. 이러한 양극화, ‘확연한 분리’에서는 종종 우월함과 열등함 사이의 실제적인 관계가 부정되어 있다(Plumwood 1993: 47~55).”

46) 송희준, 앞의 논문, 439~446면 참조.

는 쉽 없이 글을 읊조리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오늘날의 문체를 마땅찮게 여겨 옛 문체에 전력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성인의 교화는 사라지고 시대는 변했으니, 그대가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세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라는 언급은 이진창의 문집 자서(自序)에 보이는 내용과도 매우 유사하다. 자서에서 그는 문장을 업으로 삼아 간혹 득의만만하게 옛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시대적 한계로 인해 더 이상 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획을 긋고 포기한다고 술회한 바 있다.⁴⁸⁾ 이 점에서 <녹연>의 진단, 치유 과정은 구한말이라는 쇠퇴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의 ‘나’에 대한 위로로도 독해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녹연>은 혼란한 시대에 탐욕과 착취의 논리를 지양하고 상생의 가치를 환기하고자 창작되었을 수 있다. 이 점은 당시 시대상과 연관되기 때문에 동시대 엽록 소재 작품과의 비교 속에서 그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예컨대 앞서 제시한 이유원, 김윤식, 곽중석의 작품에는 녹용·녹혈을 향한 인간 탐욕에 대한 비판과 사슴의 비극에 대한 연민이 나타난다. 이유원은 관중이 녹혈을 마신 고사를 원용해 그 약용성에 대한 미신적 믿음을 지적하고, 자신의 수명 연장을 위해 무고한 생명을 희생하는 인간의 탐욕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⁴⁹⁾ 김윤식과 곽중석은 무고한 사슴이 왜 제앙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반문하며, 사냥 행위를 비판하고 사슴의 희생을 애도한다.⁵⁰⁾ 특히 주목되는 점은 사슴의 운명을 인간 현실에 유비한 부

47)李建昌, 앞의 글, “然子徒知數者之傷人, 而不知子之所以召疾者, 乃有過耶! 子爲文章, 凡幾十年. 口不輟哦, 手不停編. 不屑爲今, 力追古先. 大化陵夷, 世降時遷. 非子不才, 勢使之然. 子不知此, 屹屹逾前. 憤排愁苦, 忘食與眠. 嘔心髮白, 自古所憐. 子於仕進, 自謂知足. 希古驚遠, 內實大欲. 羣譏衆譽, 不挂耳目. 獨思千古, 輝映簡竹. 觀古聖賢, 有顯有伏. 好名之躁, 何異干祿?”

48)李建昌, 『明美堂集』 권16, <明美堂詩文集叙傳>, “於文章, 方其得意, 或自以爲不甚愧古人. 及久而有進, 則滋見古人之不可及, 然其所謂進者, 識解而已, 壯銳英華之氣, 日以消落. 遭宇宙之大變, 苟然不死, 目見姚姬姬孔之一線岌乎將絕, 況所謂詩古文者乎? 以此益無意於復進, 且亦不能進矣. 年未五十, 而仕宦文章, 一切自畫. 將來悠悠之日, 何以爲人也?”

49)李裕元, 『嘉梧藥略』 권4, <獵鹿>, “山獸亦具一點明, 常性其耐受衆戮. 春秋戰國管氏子, 願得其血不願肉. 百金不惜一頭來, 而熱而淪充肚腹. 管氏之子何太痴, 可使靈藥延壽福. 獸不爲人殺身者, 肯出腔血使之服?”

50)金允植, 『雲養集』 권1, <獵鹿>, “豈意反速禍? 而無寧居日. 夏至初解角, 深居常兢忱. 夏至初解角, 深居常兢忱. 朝出飲澗水, 流丸如星疾. 衆羸歡相聚, 呶血如啗蜜. 夜靜山月白, 呦呦求其匹. 年年長世離, 子母亦相失.”; 郭鍾錫, 『侁宇集』 권4, <鹿歎>, “可憐林中鹿, 非辜遭此罹… 於人百無憎, 云胡禍機惹? 直緣頭上羸, 一枝博萬錢. 醫家說作脩, 獵戶奮爭先. 難星進一夕, 嗟爾不免夫.”

분이다. 김윤식과 곽종석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로 인해 희생되는 사슴을 통해 덕 있는 사람이 도리어 세상의 질시를 받는 현실을 투영해 바라본다.⁵¹⁾ 그리고 결미 부분에서는 현실을 ‘간교한 여우들이 날뛰는 상황’이라 묘사하거나,⁵²⁾ 사슴에게 뽕을 벗어던지고 험한 산에 머무르며 이익을 탐하는 자들에게 한 푼의 가치도 없게 보이라고 조언한다.⁵³⁾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녹언>에도 비슷한 시대성이 반영되었다고 본다면, <녹언> 역시 당대에 만연했던 이익 추구 논리와 탐욕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앞에 희생되고 위축되는 존재들에 대한 공감의 시선을 담아낸 작품으로 독해될 수 있다.

종합하면 <녹언>은 대내외적 혼란기 속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대한 공감을 기초로, 착취 논리에 의해 퇴색되어 가는 상생의 가치를 재고한 작품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혹독한 질타의 시선이 아닌 치유와 상생의 시선이다. 인간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인간을 배제하지 않고, 자연과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치유의 길을 제시하는 점이야말로 생태 문학으로서 <녹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⁴⁾

IV. 나가며

본 연구는 그간 풍부한 생태학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각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녹언>을 생태학 및 생태 비평의 관점에서 새롭게 독해하였다.

먼저 2절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사슴의 표상과 문학적 재현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사슴은 평화롭고 무해한 존재 혹은 장생의 상징으로 형상화되

51) 金允植, 앞의 글, “蘭以香自焚, 膏以明自滅. 懷寶諒難容, 遂爲世所嫉.”; 郭鍾錫, 앞의 글, “翠羽翽之果, 香臍羆所咀. 匹夫懷白璧, 古來同憂歎.”

52) 金允植, 앞의 글, “俯觀西阜下, 狐狸自放逸.”

53) 郭鍾錫, 앞의 글, “那當去爾角, 棲真宅嚙旣. 遂令射利子, 不直一錢看.”

54) 이 점에서 본고는 송희준(2005)이 제시한 ‘세속인의 교만과 과욕에 대한 경계’ 및 ‘구한말 지식인의 자기반성’의 측면에 더해, 작품의 진단-치유 과정과 사슴의 온유한 상을 통해 드러나는 위로와 치유의 시선을 작품의 주요 특징으로서 함께 논하고자 한다.

었다. 그런 한편 조선의 생태 현실에서 사슴은 줄곧 사냥당하는 피식자의 위치에 있었으며, <녹언>이 창작된 19세기에 이르면 사슴 사냥의 잔혹성을 성찰하는 엽록 소재 작품들이 다수 등장하게 된다. 이들 작품은 대체로 녹용 채취를 위한 사슴 사냥을 소재로 삼았으며, 녹용과 녹혈을 취하는 피로한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작품군이 이 시기에 다수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단언하기 어렵지만, 17~18세기의 지속적인 사슴 개체 수 감소, 조선 후기 백성들이 공물 납부를 위한 녹용 채취에 동원된 정황이 직·간접적 요인으로서 참조될 수 있다.

3절에서는 본격적으로 <녹언>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그 생태학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첫째로 <녹언>은 사슴을 언술 주제로 내세우는 의인화 기법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위계를 전복한다. 이는 앞서 <호질>이 사용한 기법으로, 현대 생태 문학에서도 흔히 찾아지는 수사 전략이다. 다만 <녹언>은 <호질>의 ‘꾸짖는 호랑이’를 ‘치유하는 사슴’으로 변용함으로써 인간의 폭력성을 사슴의 은유한 상에 비추어 성찰하고 사냥 행위에 대한 죄의식을 효과적으로 환기한다. 또한 이자에 대한 사슴의 진단과 치유 과정을 작품에 구조화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상호 연결된 존재임을 일깨우고, 상생을 통한 자기 치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사슴의 계도를 받은 이자가 엽록에서 방목으로 사유를 전환함으로써 이자와 사슴의 서사는 분리를 전제로 한 착취에서 연결을 바탕으로 한 상생으로 이행된다.

무엇보다도 <녹언>은 몽유 구조와 ‘병자(인간) — 진단자(사슴)’의 구도를 통해 이자의 치유 과정을 작품 속에 구조화하고, 인간 논리와 대비되는 사슴의 진단을 통해 자연과의 연결성을 강조한다. 사슴의 조언을 받아들인 이자가 엽록에서 방목으로 사유를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서사는 분리를 전제로 한 착취 관계에서 연결을 바탕으로 한 상생 관계로 이행된다. 인간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인간을 배제하지 않고, 자연과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치유의 길을 제시하는 따뜻한 시선이야말로 생태 문학으로서 <녹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道德經』
『詩經』
『明美堂集』
『嘉梧藁略』
『德陽遺稿』
『東國李相國集』
『梅月堂詩集』
『侂宇先生文集』
『星湖僊說』
『續東文選』
『櫟翁稗說』
『熱河日記』
『雲養集』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2. 단행본

김동진, 『조선의 생태환경사』, 푸른역사, 2017.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하버드대학 세계종교연구센터, 『불교와 생태학』,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불교생태학총서 2, 2005.

그랙 개러드 저, 강규한 역, 『생태 비평』,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메리 에벌린 터커 저, 오정선 역, 『유학사상과 생태학』, 예문서원, 2010.

Girardot, N. J. 저, 김백희 역, 『도교와 생태학』,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3. 논문

김경미, 「생태비평의 관점에서 본 『호길』」, 『한국한문학회연구』 72, 한국한문학회, 2018, 139~166면.

- 김경미, 『관계로서의 동물, 동물의 문학적 재현 - 조선후기 ‘동물전(動物傳)’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1, 이화어문학회, 2020, 37~63면.
- _____, 『에코페미니즘과 고전문학 연구의 접점 찾기-〈쾌호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2, 5~31면.
- 김유미, 『인간-동물 관계의 인식과 실제 - 『성호사설(星湖僿說)』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4, 이화어문학회, 2021, 119~137면.
- _____, 『국외의 동아시아 연구와 한국학 동향 -전근대 생태문학에 관한 영어권 저서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76, 열상고전연구회, 2022, 133~160면.
- 김정은, 『〈십장생도(十長生圖)〉의 상징과 생명사상』, 『한국민화』 6, 한국민화학회, 2015, 553~579면.
- 박수밀, 『생태 글쓰기(Ecological Writing)의 가능성과 전망』, 『작문연구』 28, 한국작문학회, 2016, 1~34면.
- _____, 『생태 글쓰기의 발전적 탐색과 쓰기 절차: 박지원과 이옥의 작품을 중심으로』, 『동방학』 44,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1, 1~31면.
- _____, 『연암 박지원의 생태 정신과 공생 미학』, 『열상고전연구』 77, 열상고전연구회, 2022, 59~89면.
- _____, 『담헌(湛軒)과 연암(燕巖)의 문학에 나타난 생태적 세계관』, 『동방학』 5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5, 111~136면.
- 송희준, 『명미당 이건창의 의식세계의 한 국면 -『녹언(鹿言)』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35, 한국한문학회, 2005, 431~456면.
- 신두호, 『자연과 언어-생태문학의 의인화 기법과 문학 생태학의 녹색언어 탐색』, 『영어영문학』 47, 영어영문학회, 2001, 847~869면.
- 안영훈, 『서양인이 간행한 이규보(李奎報) 영역시(英譯詩)의 양상과 특징 -생태적 관점의 읽기와 의미부여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77, 열상고전연구회, 2022, 223~259면.
- 이병희, 『조선시기 동물의 수적 변동과 그 의미』, 『청람사학』 32, 청람사학회, 2020, 119~181면.

An Ecological Reading of Yi Kŏnch'ang's "Nokŏn"

Kim, Soeun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offer a new ecological reading of "Nokŏn" by Yi Kŏnch'ang.

In "Nokŏn," the deer functions not only as the narrative subject but also as a symbolic figure whose voice and image are central to the text's implication. Traditionally depicted as peaceful, benign, and associated with longevity, the deer in late Chosŏn reality occupied a vulnerable position as a persistently hunted species. By the nineteenth century, Yi Kŏnch'ang, along with Yi Yuwŏn, Kim Yunsik, and Kwŏk Chongsŏk, had each produced works reflecting on the cruelty of deer hunting—likely informed by the gradual decline in deer populations and the pressures of the antler tribute system.

The ecological significance of "Nokŏn" emerges in two major aspects. First, the text foregrounds the deer as the narrative subject, thereby challenging the conventional human-animal hierarchy—a strategy also found in modern ecological literature, prefigured in Pak Chi-wŏn's "Hojil." Unlike the reprimanding tiger in "Hojil," "Nokŏn" recasts this figure as a healing deer, using its gentleness to expose human violence and to prompt ethical self-reflection. Second, through the deer's diagnosis of Yi-ja, the work highlights human-nature interdependence and proposes the possibility of healing through coexistence. Yi-ja's shift from yŏllok(hunting deer) to pangnok(releasing deer) marks a transition from exploitation to relational symbiosis.

Keywords: Yi Kŏnch'ang, Nokŏn, deer hunting, nokyong, ecology, Hojil, Ecological interdependence

접수일자: 2025. 9. 30.
심사기간: 2025. 10. 1.~2025. 11. 10.
게재결정: 2025. 11. 10.